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교육의향

추교준
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장



나는 2011년경, 어느 글에서 읽었던 '교육 불가능'이라는 낱말을 다시 떠올린다. 우리 사회는 교육이 불가능한 사회이다. 나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최근 이름만 대면 한국인 모두가 알 법한 축구 선수의 아버지인 축구 감독에 관한 일들이 연일 뉴스 지면을 채우고 있다. 그 감독이 이끄는 축구교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를 읽다 보면 참담한 마음을 추스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교육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가장 최근의 기사를 보자. 축구 감독과 코치들은 유소년 축구경기에서 생각하던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코치들이 온갖 욕설, 고성,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 "야 이 ○○야,", "꿀값 떨어 말라", "야, 너는 병○○야? 머릿수 채우려고 들어갔냐?", "하기 싫으면 나와 이 ○○야".

이 모든 장면은 영상으로 기록이 되었다. 심지어 다른 영상에서는 감독이 직접 선수를 발길질하기도 했다고 한다. 앞에서는 '기본이 중요하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등 온갖 입바른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뒤에서는 사실상 폭언과 폭행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비하면 놀랍지도 않다.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고소 하겠다고 하면서 아이의 '꿀값'을 흥정하는

부모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수년 전에 어느 기업의 대표가 운수 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난 뒤에 '한 대당 100만원씩' 꿀값을 던져줘서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일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는데, 이제 부모라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자식의 꿀값을 뜯어내려고 '20억을 달라', '5억 밑으로는 안 된다' 요구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그런가 하면 그 외의 부모들은 그것은 폭언과 폭행이 아니라며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다. 이 일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수년간 아카데미에서 지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사람들이 각자의 잣대만을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아카데미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정작 이곳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라며 감독 및 코치를 옹호했다.

참담한 마음으로 기사를 보다가 문득 겁이 났다. 이 일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한쪽에서는 자신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설과 폭행을 퍼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욕설과 폭행의 대가를 흥정하고 있다.

또 그들의 맞은편에는 그것은 훈련이고 교육일 뿐, 욕설과 폭행이 아니라며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덮으려 하고 있다. 그 축구 아카데미에서 활동했던 그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이런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이후에도 여러 어른들이 이들에게 이런 저런 내용들을 교육할 텐데 그 청소년들은 자기 앞에서 있는 어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더 나아가 그 청소년

들이 나이가 들어 자기를 뒤따르는 어린 사람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까?

고개를 들어 멀리 내다보면, 이미 한국 사회의 교육 현장은 무너져 있다.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엎드려 있는 것은 이제 아무 일도 아니다. 여기서는 학생이 동료 학생에게, 아니면 교사에게 흥기를 휘두른다. 저기서는 학부모가 교실문을 박차고 들어와 교사를 다그치고 때린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교사는 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다. 참다못한 교사는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한다. 그걸 보며 보수 단체에서는 이때다 싶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외친다. 그 와중에 '의대 입시 광풍'이니 뭐니 하며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들이밀고 있다.

이제는 솔직해지자.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교육이란 불가능한 사회라는 것을 선언하자.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자. 이 모든 일은 무한 경쟁 속에서 불안과 욕망에 휩싸여 우리의 정신이 사실상 파탄 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자. 정신이 무너진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학생들의 정신을 또다시 파탄 내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자.

그래야 현장에서 펼쳐지는 지옥도와는 동떨어진, '미래 교육'이니 '융합 교육'이니 하는 헛발질을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으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 참담한 어른들 사이에서 온갖 일들을 겪고 있는 그 축구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추스를 수 있지 않을까.

社說

'싸이 흠뻑쇼' 계기 지역경제 활력 되찾길

이틀 공연에 4만여 명 관람

전국 순회 대형 콘서트인 '싸이 흠뻑쇼'가 지난 6일과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좌석 2만 여석 모두 이틀 연속 매진되면서 모처럼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었다고 한다. 가수 싸이 공연 소식에 행사장 인근 숙박업소의 예약이 이미 끝나는 등 지역 상권이 들쭉날쭉했다.

공연기간 숙박전문 A어플은 이미 공연 첫날인 6일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예약이 완료됐다고 한다. 공연 타인지 다른 주말(7월 13일-14일 1박 기준)에 비해 객실 단가가 평균 3만 원 정도 높아진 곳이 많았다. 상당수 숙박시설도 빈방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반짝 특수'를 누렸다고 한다. 싸이 공연이 열린 주말은 장마가 예고된 날로, 관광업계는 비수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싸이 공연'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공연기간 숙박업소 뿐 아니라 인근 식당들도 손님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5년 전 싸이 흠뻑쇼 때 특수를 누렸

던 풍암지구 일대 식당 등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한 식당주는 보통 오전 3시에 마감을 하는데 공연을 보고 나온 손님들로 이른 아침까지 영업을 했다고 한다. 다른 곳들도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들로 숨 쉴 틈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하루 2만 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됐지만 크고 작은 안전사고 없이 공연을 마쳤다고 한다. 사고방지를 위해 광주 서구는 지난 1일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공연장 안전계획을 수립했다. 공연 당일에는 경찰서, 소방서와 협조해 공연장 내·외부 교통 통제와 안전 관리에 나섰다. 경찰도 기동대 등을 공연장 곳곳에 배치했다.

물가상승과 높은 금리 등으로 요즘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여름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지역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졌다. 6-8월 사이 잦은 비와 더위 때문에 외지인 유입효과가 큰 행사들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싸이 흠뻑쇼처럼 대형 공연이 광주에서 자주 열렸으면 한다. 무려 4만 여 명을 끌어 모은 싸이 공연에 흠뻑 젖은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한 행태 아닌가

배달 플랫폼 폭리 미봉책 안돼

배달 앱 사용이 일상이 되면서 배달 수수료에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다. '공룡'이 된 배달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파렴치한 행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수박 겉핥기'에 머물러 되레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정 사업자의 욕심만 채워주는 일그러진 배달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6.8-12%에 이르는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업체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이윤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한다. '10%가량의 표면상 수수료가 아닌,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20%를 훌쩍 넘어간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배민 1은 중개수수료와 함께 건당 3300원을 별도로 받는다고 한다. '배달수수료 때문에 장사를 접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배달 시장이 매년 성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정부의 대책도 허울뿐이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수수료 문제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영세음식점'의 매출 기준이 낮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해 출시된 공공배달 앱 역시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다. 소비자는 가맹점이 적고 이용이 불편한 것 같다는 생각에 앱 사용을 꺼리고 자영업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앱을 사용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치킨값 3만원' 시대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행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이것이 다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지금의 시장은 대형 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불합리한 제도다. 공공 배달 플랫폼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빠르고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진일보 @jnilbo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

서석대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전례 중 인사를 나누면서 이웃에게 평화를 빌어준다. 내 옆의 이웃이 누구든 상관없이 평화를 빕니다. 누군가의 평화를 비는 일에 조건은 없다.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바라지만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순탄치 않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열흘 만인 지난 4일 화성시청 분향소에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놓였다.

그리고 지난 1일 서울 시청역에서는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시청역 근처 사고 현장에는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퇴근 후 밥 한 끼 먹고 돌아가고 있던 그 길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달리한 9명의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집에 돌아가면서 아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의 아빠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차마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추모 공간에 붙은 쪽지 내용이다. 비를 맞아 군데군데 젖은 쪽지 아래로 흰 꽃이 놓였다.

쪽지를 쓴 학생은 “오늘 아침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아침부터 1시간 반 거리를 운전해 학교에 데려다주시는 아빠께 감사 인사를 할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그곳에서는 여기서 못 누렸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사시길 바라며, 유가족분들도 평화와 안심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했다.

2주 사이 연이어 터진 국가적 참사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걷는 인도가 침범당했다는 점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더하다.

최근 사고들은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일터 그리고 직장인들이 아침저녁으로 오가는 평범한 공간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참사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매일 뉴스 메인을 장식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인명사고들도 시민 불안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연초부터 하루도 영일이 없이 크고작은 사건사고로 얼룩졌던 2024년이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부디 남은 하반기에는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집을 나선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언론 톱뉴스가 되지 않길, 모두의 일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본다.

김은지 취재2부 기자

| 全南日報 | 시장·발행·편집인 | 이재욱 | 논설실장 | 이용환 | 편집국장 | 박성원 |
|---|---|--------------------|--------|---------------|------|-----|
|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 대표전화 | (062)527-0015 | 경영지원팀 | (062)510-0421 | | |
| | 기사제보 | (062)510-0331 | 광고영업팀 | (062)519-0710 | | |
| | 편집부 | (062)510-0412 | 문화체육부 | (062)510-0351 | | |
| | 취재1부 | (062)510-0380 | 온라인뉴스부 | (062)510-0461 | | |
| | 취재2부 | (062)510-0394 | 사진부 | (062)510-0391 | | |
| 정치부 | (062)510-0340 | | | | | |
|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 |
| 구독신청 (062)510-0471 | | 광고문의 (062)512-0100 | | | | |
| FAX (062)510-0436 | | 서울지사 (02)725-8890 |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